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18.(금) 14:00	배포 일시	2022. 11. 18.(금) 13:00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 김영현 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재은 (jaeeunpark92@korea.kr)

제8차 한국-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 개최

□ 기획재정부는 '22.11.21(월) 서울에서, 방한한 싱가포르 재무부와 제8차 한국-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를 개최한다.

- 동 회의는 양국간 경제·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, '08년부터 '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었으며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,
- 금년 회의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한국에서 개최되며, 싱가포르에서는 이 핑 이(Yee Ping Yi) 차관보(Deputy Secretary)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.

□ 이번 회의는 ①최근 경제 동향·전망과 정책과제, ②아세안(ASEAN)+3* 역내 금융협력, ③국부펀드 운용, ④지속가능금융 및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협력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.

*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sociation of South-East Asian Nations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) 10개국 및 한·중·일 3개국

- 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 양국 의견을 교환하고,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.
- ②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+3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(CMIM*)의 실효성 제고 방안,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(AMRO**)의 역량 강화 등 아세안+3 금융협력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한다.

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: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총 2,400억불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으로, 우리나라 분담분 384억불(분담률 16%)

** ASEAN+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: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, CMIM 운영지원 등 수행('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 → '16년 국제기구로 전환)

③ 이어, 세 번째 세션에서는 **국부펀드 운용**과 관련된 **양국 재무부의 역할** 및 **정책방향**을 공유하고, **협력방안**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.

④ 마지막 세션에서는 녹색채권 발행, 아세안 녹색분류체계 등 **지속가능금융** 관련 의제 및 세계은행(WB)의 팬데믹 기금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등 **다자개발은행**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□ 금년 회의는 아세안 내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싱가포르와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아* 대외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,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글로벌 및 역내 경제·금융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* GDP 대비 무역의존도('21년 기준): 한국 69.6%, 싱가포르 217.4%

○ 또한, 싱가포르는 AMRO 소재지로 아세안+3 협력의 지리적인 거점이자 아세안 국가들간 이해관계 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, 한·싱 양국간 협력 증진은 아세안+3 주요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